

李灌鎔氏의 (唯物批評根據)의 (前言) 撤回를 要求하는 公開狀 (三)

裴相河

나의 論文의 焦點은?

먼저 그 論文을 述作할 さい 나는 엇서한 態度를 가졌섯나를 알리워야 하겠다. 換言하면 나는 아직은 唯物論者도 안이며 唯心論者도 안이다. 그럼으로 唯物論의 態度를 가질 수도 업섯스며 唯心論의 立場을 잡지도 안헛섯다. 따라서 『非唯物的 哲學觀』은 唯心論의 立場으로써의 唯物論 反駁도 아니며 唯物論의 根據에선 唯物論 擁護論도 勿論아니다. 다만 모든 心的 現象까지도 物的 根源에 歸一하려는 徹底한 唯物論의 解釋과 모든 物的 事象을 心的 單元에 還元하려는 徹底한 唯心論의 立說이 아모리 보아도 그양 그대로는 無理스런 曲解에 싸지지 안힐 수 업다는 나의 懷疑的 深求的 超主義的 態度에서 올어난 것이라 할 수밖게 업다. 該論에 잇서서 筆者는 한 사람의 心理分析과 生活現象으로 말미암아 엇서한 人生에게든지

二[一]. 먹는 것(絶對的 物的 要求)

一. 아릿싸운 것(美的 要求)

一. 보히지 안는 것(形而上學的 要求)

一. 괴로운 것(解脫 要求)

등의 四個 根源的 要求가 잇슴을 말하엿스며 『먹는 것』이란 絶對的 物的 要求 위에 徹底한 唯物論의 根據를 許認하고 『아릿싸운 것』·『보히지 안는 것』·『괴로운 것』等 心的 要求위에 徹底한 唯心論의 土臺를 容納하자고 하얏섯다. 그럼으로 『먹는 것』은 唯物論에 對한 擁護論이라고도 볼 수 잇는 터이니, 각구로[거꾸로] 보아서 『아름싸운 것』·『보히지 안는 것』·『괴로운 것』이 唯物論에 對한 皮肉的 誹謗이라고 할 것 가트면 『먹는 것』은 唯心論에 對한 皮肉的 誹謗일 것이다. 簡單하게 말하면 吾人은 決코 該論으로써 唯物

論만을 反駁하자 함이 아니었었다. 『結論』에도 말한 바와 가티 徹底한 唯物論과 아울러 徹底한 唯心論도 또한 吾人에게 思索的 滿足을 주지 못할 것을 立說한 것이니 만약 該論으로써 唯物論에 對한 根據업는 誹謗이라고 할 것 가트면 꼭 마찬가지로 그는 唯心論에 對한 根據업는 誹謗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物과 心 어느 것이든지 한 個의 根原的 物 그 自體되기에는 不當함으로, 物도 아니고 心도 아닌것 그릇타고 物 아닌 것도 아니며 心 아닌 것도 아닌 것, 『物心の 相互關係』라는 流動的 一元으로써 吾人の 世界觀的 根原支配 元子를 만드자고 主張한 것이 該論의 中心이었섯스니, 萬若 이 點에 對한 反駁이 잇다면은 그 反駁이 正當튼 不當튼 如何間 問題의 中心만은 把握한 反駁이라 할 수 잇겠지만은, 李先生의 『前言』으로 말하면 李先生께서 該論의 中心을 읽지 안치나 안했나하는 疑心이 날만치 中心問題인 何等의 干涉업시 그양 덮퍼노코 唯物論에 對한 皮肉的 誹謗이라는 그야말로 皮肉的 誹謗으로 一貫하고 잇다. 該論은 物的 單元에도 滿足치 못하며 心的 單元에도 滿足치 못하는 筆者의 學究的 精神의 甚히 動搖하고 잇든(그러나마 眞□한) 不滿의 한 流露에 지나지 안는다. 該論을 皮肉的 誹謗이라고 獨斷하신 李先生이시니 祭壇압해서 祈禱드리는 괴름 만흔 者에게도 『너는 皮肉的 誹謗者』이라고 辱하실는지 모르겟다. 萬若 이러케 辱하는사람이 잇다면 나는 그 사람의 쌈을 갈기고 십다. 그럼으로 李先生의 『前言』의 쌈을 갈기고저 하는 바이다.

以上과 가티 該論의 中心은 物心 어느 편에든지 滿足치 못하는 筆者의 過渡期的 懷疑的 精神의 한 表現이었스니, 萬若 이 點에 李先生께서 留意하섯다면 決코 該論을 唯物論에 對한 皮肉의 誹謗맞게 아모 것도 업다.) 하는 大膽하고도 李先生을 爲하여 不名譽스러운 素朴한 批評이 생기지 안헛슬 것이다.